

다이와보 - 중국 쑤저우에 성형 편기로 신회사 설립

다이와보는 2005년 8월에 성형(成型 ; full fashion) 이너를 판매하는 신회사를 중국 쑤저우(蘇州)에 설립하였다. 2006년 1월에는 성형 편기 5대를 가동하여 멘즈 이너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15대 체제가 될 것이며, 스포츠 이너나 캐주얼 아우터와 레이디스용까지 아이템이 늘어난다.

이제까지 쑤저우다이와 침직복장유한공사에 성형 편기를 도입하는 등을 검토하였는데, 마침내 신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되었다. 2006년 1월에는 성형 편기 5대를 가동시켜 월산 5만매 생산 체제를 만들 계획이었다. 최초의 생산 아이템은 멘즈 이너이며, 양판점의 볼륨 존보다는 1~2 계단 높은 가격대를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다. 원료에 대하여는, 면 소재는 일본에서 공급하고, 합섬은 제3국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2006년 10월에는 성형 편기 5대를 증설하여, 스포츠 이너나 캐주얼 아우터도 생산하게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15대 규모로서 레이디스에 이르기까지 아이템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다이와보는 중국의 인건비가 오르고 있어, 인민 위엔화의 환율도 오르는 상황이므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도 노동 집약형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이번의 투자는 그러한 조치의 하나로서 이제까지 중국의 생산은 한 사람이 몇 장 생산할 수 있느냐로 검토하였는데, 제1사업부에서는 인건비가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부터는 설비 1대 당 판매량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바뀌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